

농촌노인의 독거·동거 가구형태가 심리적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Living Arrangement and Psychological Loneliness of Rural Elderly in Korea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농업연구사 양순미*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홍숙자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Ph. D. : Yang, Soon-Mi

Dept. of Social Welfare, Woos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ong, Sook-Ja

〈Abstract〉

Living arrangement is considered an important variable in discussing loneliness and the psychological state of the elderl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 effects of living arrangements, sociodemographic variables,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psychological variables on the psychological loneliness of the rural elderly. Th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e predictors of loneliness among the rural elderly were identified as single/co-residence living arrangement($r=.49$), sense of well-being based on respects for others' perspectives ($r= -.22$), needs for remarriage ($r=.22$), and work hours during off-farming season ($r= -.19$). The effects of living arrangement remained strong and were not influenced by the addition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social activity variable, and social psychological variables. The feeling of loneliness of the elderly who were living alone was higher than among the elderly who were living with someone else.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loneliness of the rural elderly derives primarily from the lack of family interactio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social welfare policies for the rural elderly be designed to improve their family and social interactions.

▲ 주요어(key word) : 농촌노인(rural elderly), 고독감(loneliness), 가구형태(living arrangement), 독거/동거가(single/co-residence)

1. 서 언

현대인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친밀한 애착관계나 상호작용의 결여로 누구나 정서적 또는 사회적으로 고독을 느끼게 된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 고독감은 그들의 4고(고독, 고령, 고위험, 고비용)중의 하나로써 역할의 상실, 경제적 능력의 상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한계, 가까운 사람들의 사별 등으로 인해 다른 어떤 생애발달주기에서 보다는 고독감이 깊거나 만성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왔

다. 그러나 고독은 행동과학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임상적인 측면에서 다른 심리적인 부적응과 중복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나마 연구자마다 고독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서로 달라 그들이 추구하는 이론적인 방향도 달랐다. Sullivan(1953)은 고독의 정의에서 인간이 내면적으로 지니는 친교(intimacy)의 욕구를 강조했으며, Lopata(1969)는 사회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며 평가하는가에 관한 인지과정을 강조했다(송대현·윤가현, 1989, 재인용). 사회관계의 연결망이 개인이 바라는 것보다 적거나 심리적인 만족감을 저하시킬 경우 즉, 인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기대수준과 달성수준간의 차이에서 일어나

* 주저자 : 양순미 (E-mail : ysm@rda.go.kr, ysm0507@hanmail.net).

는 것(Peplau & Periman, 1979)으로 정의되기도 했다(박선희, 1997, 재인용). 이와 같이 비록 고독을 정의하는 방향은 달랐지만 고독이 개인의 인간 및 사회관계의 결핍을 느끼는 데서 생긴다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노인의 고독감이나 심리상태를 논의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주목되어 왔던 변인은 거주가구유형변인이다. 그것은 가구형태가 단순히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구조적 차원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기대나 규범, 세대간 유형, 가족상호작용의 유형 등을 함의하고 있어서 그에 반영되는 효과의 차이를 다각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 독거가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노인문제나 사회문제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어 이것이 노인복지정책 방향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사회지표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자녀의 분가나 직장으로 인한 도시로의 이동 등으로 노인독거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2000년 18.6% : 농촌생활연구소, 2002)에 있어서, 이에 따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인의 독거·동거 가구형태는 주생활 등의 연구분야에서도 이제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독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촌의 노인들이 인지하는 고독감이 그들의 거주가구유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작업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해 가는데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사료되어진다.

그런데 노인들의 거주가구유형에 대한 규범적 준거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오면서 그들의 고독감이나 심리현상에 반영되어 왔었다. 예를 들면 독립주거에 대한 강한 선호성을 보이는 미국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동양권에서는 전통적인 동거문화규범의 영향으로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졌다(원영희, 1995).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자식과 따로 사는 부모들이 증가하면서('98년 44.9% ⇒ '02년 56.7% : Yahoo 인터넷, 2003) 독거가구유형을 선호하는 문화적 규범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변화추이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인들의 거주가구유형이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으며(홍숙자, 1992; 한경혜·윤순덕, 2001), 거주가구유형 그 자체보다는 노인의 건강, 경제적 여건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들이 노인들의 행복감이나 고독감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 사실 노년기가 역할상실, 사별, 신체적인 노화, 인생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등과 같은 특별한 생애주기적 발달과업을 갖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심리변인들도 그들이 인지하는 고독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논거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농촌노인의 독거·동거 가구유형,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활동 변인, 사회심리 변인으로 나누고 이에 속하는 개개 변인들이 농촌노인들의 고독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독거·동거 가구유형,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사회활

동 변인들, 사회심리변인들이 투입됨에 따라 독거·동거가구유형변인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이 변인이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가구형태에 따라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분석한 일부 선행연구(원영희, 1995; 한경혜·윤순덕, 2001)에서는 자녀와의 동거또는 별거 여부, 배우자의 유무를 이의 결정요인으로 하여 접근했지만, 본 연구에서의 동거는 부부나 자녀 구분 없이 최소한 가족원 중의 어느 한 사람과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접근한다. 이는 고독감이 사회적 관계의 결핍에서 생겨나며 사회적 접촉이나 관계형성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다는 논거하에서 가족원 중의 최소한 어느 한 사람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생겨나는 가족상호작용이나 관계형성에 의한 결과들이 농촌노인들의 고독감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본 연구의 결과들은 농촌노인의 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고독감의 정의와 이론적 접근

고독은 인간 누구 나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감정이자 고독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은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개발되고 제안되었으나 고독은 어느 한 방향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매우 다양한 측면을 지니는 복잡한 현상이다. Peplau와 Periman(1979)에 의하면 고독은 사회관계의 연결망이 개인이 바라는 것보다 적거나 심리적인 만족감을 저하시킬 경우에 생긴다고 한다. 즉, 고독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기대수준과 달성수준간의 차이에서 일어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기대수준은 단지 친밀감을 구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경험이나 집단이 지니는 규범적 기대 등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들이 어떤 중요한 측면을 결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 불쾌를 일컫는 고독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대수준을 고려치 않고 단지 타인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일컫는 고립이나 독거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혼자 있지만 고독한 감정에 빠지지 않는 일도 적지 않다(Townsend, 1957). 타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상태인 사회적 고립이나 독거가 고독을 낳는다면 그것은 당사자에게 강한 사회적 접촉이나 관계형성의 욕구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고독현상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도 공존하고 있다. Freud 자신은 고독에 대해 어떤 견해를 표명한 것이 없지만 Fromme-Reichman, Sullivan, Zilboorg의 정신역동적인 관점에 의하면, 고독은 주로 임상장면의 관찰에 바탕을 두고 있

다. 이 관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고독의 기원을 어린 시절에서 찾았으며, 생의 초기에 경험하는 좋지 않은 사건들에 의한 증상이 대인관계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핵심은 개인내에 있다고 본다. Rogers의 현상학적 관점에 의하면 고독은 성격에 대한 자기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관점도 정신역동이론과 유사하게 임상적 관찰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고독은 부적응의 표현이며, 고독의 원인이 자기개념들 사이의 현상적 불일치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신역동적인 관점이 고독에 대한 아동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면 현상학적 관점은 현재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강조하는 데 차이점이 있다. Moustakas의 실존적 관점은 정신적 역동이나 현상학적 관점과는 달리 고독을 긍정적으로 본다. 고독이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생산적이고 창조적일 수 있는 경험의 바탕으로 본다. Bowman 등의 사회학적 접근에 의하면, 현대사회에서 고독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요인들은 일차집단관계의 감소, 가족유동성의 증가, 사회적 유동성의 증가이다. 이들은 고독의 요인을 타인지향적인 사회구조나 개인주의, 사회규범적인 측면에 두고 있다. Weiss에 의한 상호작용적 접근에 의하면, 고독은 성격요인이나 상황적 요인 어느 하나만이 아닌 이 두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생기는 산물로 보았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 제공하는 양식(provisions)을 통해 개인이 중요한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고독이 생긴다고 보았으며, 고독을 정서적 고독과 사회적 고독으로 구별하기도 하였다. Peplau에 의한 인지적 접근에 의하면, 고독은 사회성의 결여와 고독의 경험 사이를 중재하는 요인으로서 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박선희, 1997, 재인용). 그러나 이들 이론들이 아직은 미숙한 단계로서 고독에 대한 현상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계속적인 검증과 보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절의 서두에서 전제했던 바와 같이 고독은 다양한 측면을 지니는 복잡한 현상으로서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짓기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고독을 Peplau와 Periman의 정의나 Bowman의 사회학적 접근에 근거하여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서 오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로 규정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2. 노인의 고독감

흔히 고독은 우울과 비슷한 현상으로 간주되나,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사회관계의 변화에 따른 우울은 고독으로 연결되지만 질병과 퇴학과 같은 비사회적인 관계로 인한 우울은 고독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우울과 고독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가 일생동안 고독을 경험하지만,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경험하는 고독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대부분 만성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 구체적인 원인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활동의 제약이나 건강문제, 인간간 상호작용의 감소, 배우자와의 사별, 경제적인 궁핍 등으로 젊은 사람들이 경험하

는 것과 본질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년기의 역할 상실은 노인의 고독감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성철, 1996). 현대사회의 기술집약적 경향은 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상당한 수준으로 위축시켰고, 노인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요 기계였던 비공식적인 사회관계망 또한 개인적 성취와 독립이 중시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와 같은 역할상실이나 약화가 노인의 사회관계와 인간간 상호작용을 변화시켜 고독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자살 가능성이 있고 우울한 노인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확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다. 노인의 자살과 고독과의 관계를 보면, Bron(1989)과 Erlemeier(1988)은 노인의 자살을 유도하는 위험요소로 만성질환, 정서적 장애(우울), 대인관계의 갈등, 사회적 고립과 고독을 들고 있으며 Ekeberg와 Aargaard(1991)는 고독과 고립이 증가할수록 노인의 자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박선희, 1997, 재인용). 또한 노인 자살율의 수위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경찰청 조사(김상규, 1973)에 의한 노인 자살률은 병고자 42%로 가장 높고 다음이 고독·염세·가정불화 및 빈곤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에 관한 문제는 결코 적절한 생계지원이나 시설 구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노인 문제는 대부분 인구학적 경향이나 사회제도에 초점을 두어 왔을 뿐, 노인의 고독문제나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는 소수의 국외논문을 제외하고는 단지 몇몇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어왔을 따름이다.

특히 노년기의 고독감이 퇴직이나 가족원의 상실과 같은 노년기 발달과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때에, 도시의 직업인들과는 달리 대부분 자영업의 형태를 취하는 농업을 경영하는 농촌노인은 그들의 생애주기동안 비자발적인 퇴직과 같은 역할상실은 경험하지 않게 되며 그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본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노인은 도시노인들 보다 역할축소의 범위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농촌의 경우에는 자녀의 분가나 도시로의 출가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노인단독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서 (조완규, 1994)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독감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거주가구유형과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사회활동변인, 사회심리변인들을 중심으로 노인의 고독감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이에 따른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3. 노인의 고독감과 관련변인

1) 독거·동거 가구유형이 농촌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들의 자녀와의 동·별거나 독거·동거 거주가구유형이

노인들의 고독감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에는 몇몇 이론적 관점들이 적용되어 왔다. 먼저 문화적 시각에 의하면, 개개의 문화는 그들 나름대로 사회성원에 대한 독특한 행동유형을 규정하며 이에 대한 문화규범을 지니는데, 개인은 이러한 문화적 기대감에 대해 실제생활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일치를 가질 때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국노인은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 및 그들로 부터의 부양을 기대하며 이를 문화적 유형으로 선호해 왔다(서병숙, 1989; 유명숙, 1985). 따라서 농촌 노인의 독거·동거 가구유형이 농촌사회가 규정하는 가구형태에 대한 문화적 규범을 지지할 때, 농촌노인의 고독감은 낮을 것으로 사료되나 문화적 규범을 벗어날 경우에는 고독감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교환론적 관점에 의하면, 가족내 특히 세대관계에 있어서 교환유형은 책임이라는 규범 때문에 가족성원 이외의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이유로 가족성원내 불균형된 교환은 비용이 보상보다 더욱 많을지라도 가족의 영속적 유대 때문에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Lee & Shehan, 1989).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있어서 비용을 넘는 혜택은 곧 부모로서의 권력상실 또는 자녀에 대한 의존상태로 이끈다. 그러나 독거이든 동거이든지 간에 농촌의 노인들은 대부분 농업활동에 따른 전답을 소유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존적이진 않아 독거나 동거에 따른 상황을 비용이나 혜택으로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구조/인성의 시각(Social Structure/ Personality Perspective)에 의하면 개인이 연루된 사회구조적 특성은 그들의 인간관계 및 이의 관계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반응성에 달리 영향을 준다. 이 관점에 의하면 배우자가 없거나 건강이 나쁘거나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있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독거나 동거에 따른 상황을 부적으로 인식하며 심리적으로 보다 의존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Umberson, 1992)고 본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 비추어 독거·동거 가구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독립주거에 대한 강한 선호성을 보이는 미국의 경우 자녀의 동거가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부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Aldous, 1987; Clemens & Fengler, 1980). 반면에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동거 문화규범과 효 사상의 영향으로 노후에 있어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의 고독감이나 우울증을 낮추는 것으로 간주되어졌다(원영희, 1995; 박선희, 1997; 허선영, 2000). 그러나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이나 고독감에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최성재, 1985; 홍숙자, 1992; 한경혜, 윤순덕, 2001; Fengler, Danigelis & Little, 1983; Kivertt & Learner, 1982). 이중 일부 연구들은 자녀와의 별거·동거 그 자체보다는 노인의 건강, 경제적 여건, 배우자 유무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들이 노인들의 행복감이나 심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들의 고독감에 그들의 독거·

동거 가구유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활동 변인, 사회심리 변인들이 투입됨에 따라 그 영향력이나 상대적인 중요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인구학적, 사회 활동, 사회심리 변인들이 농촌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1)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농촌노인의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용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지닌 변인은 성별, 교육정도, 연령, 경제적 수준, 신체적 건강, 친구의 수이다. 일부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우울감이나 고독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으나(김진수, 1998; 박선희, 1997; 이영화, 1997; 원영희, 1995; Atchley, 1976), 다른 연구(한경혜·윤순덕, 2001; 허선영, 2000)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일부 연구(김진수, 1998; Markides & Martin, 1979)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독감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다른 연구(조황숙·조병은, 2000; 한경혜·윤순덕, 2001; 허선영, 2000)에 의하면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증가와 함께 배우자의 상실, 건강악화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우울감이나 고독감이 증가하는 것(Thompson, 1977; 박선희, 1997; 원영희, 1995)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연구(조황숙·조병은, 2000; 한경혜·윤순덕, 2001; 허선영, 2000)에 의하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과 우울감 또는 고독감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박선희, 1997; 원영희, 1995)에 의하면 경제적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우울이나 고독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고독감 정도를 규명한 연구(박선희, 1997; 이영화, 1997; 원영희, 1995; 한경혜·윤순덕, 2001; Quinn, 1983)에 의하면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은 독립적인 생활 및 자신의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고독감이나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허선영(2000)에 의하면 이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지원망과 노인의 고독감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 의하면 친구 지원망의 접촉빈도가 적을수록 고독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영화, 1997), 친구 수와 노인의 우울감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 의하면 친구 수가 적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근영·홍달아기, 1999).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고독감에 이의 변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사회활동 변인

농촌노인의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용된 사회적 활동 변인은 농번기 작업시간, 농한기 작업시간,

자원봉사 경험, 자원봉사 참여의향이다. 은퇴이론(disengagement theory)에서는 활동을 적게 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감이 증가하는 반면에,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서는 사회활동을 많이 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주장한다(Rosow, 1976).

이의 이론들을 검증한 일부 선행연구(조황숙·조병은, 2000 ; 허선영, 2000)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수준이나 정도가 고독감에 부적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노인은 일을 통해서 경제적 자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며 자아 정체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고용상태와 고독감의 관계를 연구한 일부 선행연구(이영화, 1997)에서는 직업이 있는 노인의 고독감이 낮았으나 원영희(1995)의 연구에서는 고용상태가 노인의 우울감에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농촌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나 농번기와 농한기 농작업 시간이 그들의 고독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3) 사회심리 변인

농촌노인의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용된 사회심리변인은 재혼필요성 인지정도, 노인정책 만족감, 안녕감 1(타인관점 지향적), 안녕감 2(자아관점 지향적)이다. 선행연구결과(원영희, 1995; 한경혜·윤순덕, 2001)에 의하면 배우자 유무나 결혼상태는 노인의 고독감이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가 있거나 결혼상태에 있는 노인의 경우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근영과 홍달아기(1999)에 의하면 배우자의 유무가 노인의 우울감에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무나 결혼상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서 그들이 경험하는 가족관계의 질이나 사회적 접촉의 욕구를 내포하는 노인들의 재혼필요성인지 정도는 농촌노인들의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노인들의 노인복지 정책만족감 정도는 그들의 고독감에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희, 1997). 한편 안녕감이 농촌노인의 고독감이나 우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60~80세에 이르는 농촌노인이다. 조사 마을은 농촌생활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통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선정한 전국 187개 마을중에서 34개 마을을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하여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은 성별과 가

구유형에 따라 6가지 유형(독거남자노인, 독거여자노인, 부부동거남자노인, 부부동거여자노인, 자녀동거남자노인, 자녀동거여자노인)으로 분류하여 마을당 각 유형별로 1명씩 총 6명을 할당하였다. 이어 2002년 10월 1일에서 부터 15일 사이에 농촌생활연구 현지조사 모니터요원 34명을 통해 설문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회수된 자료는 205부이었으며 모두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고독감

고독이란 일정하게 필요로 하는 관계나 일련의 관계가 소멸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로서 노년기의 역할상실과 사별 등으로 인한 부정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고독감을 측정하는 데는 20문항으로 된 UCLA Loneliness Scale이 주로 이용되나 농촌노인들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문항수가 너무 많고 변별력이 없는 등의 한계가 있어서 단일문항의 “어르신은 현재 생활에서 어느 정도나 외로움 또는 쓸쓸함을 느끼십니까” 라는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외롭다(1)에서 부터 전혀 외롭지 않다(5)까지로 된 서열형의 5점 척도에 응답토록 하였으나 분석과정에서 이를 역부호화하고 연속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고독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2) 독거·동거 가구형태

가구유형과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명목형으로 묻은 뒤에 이를 다시 독거와 동거의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3)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성별은 명목형으로 묻은 6가지 유형의 조사대상자를 근거로 하여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으로 재구성하였다. 교육정도는 무학(1)에서 부터 대학교 졸업(5)까지, 친구 수는 없다(1)에서 부터 3사람(4)까지 서열형의 척도로 묻은 뒤에 이를 연속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하여 이용하였다. 신체적인 건강은 매우 건강함(1)에서 부터 아주 건강하지 못함(5)까지, 경제적인 수준은 아주 넉넉함(1)에서 부터 아주 곤란함(5)까지 서열형의 5점 척도로 묻은 뒤에 이를 역부호화 하고 연속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인 건강이나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연령은 개방형으로 기록토록 하였다.

4) 사회활동 변인

사회활동변인중에 자원봉사경험은 경험상태를 현재하고 있다, 과거에 해 본 경험이 있다, 해보지 않았다는 3가지 명목형으로 묻은 뒤에 있다와 없다로 재조합하였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은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없다,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다는 3가지 명목형으로 묻은 뒤에 이를 있다와 없다로 재조

합하였다. 그리고 농번기와 농한기에 일하는 농업활동시간은 개방형으로 기록토록 하였다.

5) 사회심리 변인

재혼필요성 인지정도¹⁾는 꼭 필요하다(1)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5)까지, 노인복지정책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1)에서 부터 매우 불만이다(5)까지 5점 서열형 척도로 물었으며 이것을 역부호화하고 연속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재혼필요도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안녕감은 Kessler(1985)의 6문항 척도를 요인분석하여 두 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눈 뒤에 안녕감1(타인관점 지향적 : 삶의 재미·자신에 대한 필요성·행복한 정도에 대한 인지)과, 안녕감2(자아관점 지향적 : 인생을 즐기는·생활의 만족이나 보람·일의 성취 정도)로 명명하였다. 타인관점 지향적인 안녕감은 자신의 의지나 성취에 의하기 보다는 타인관점 지향으로 자신을 조망하는 성향의 안녕감을 함의한다. 자아관점 지향적인 안녕감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 등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자신의 관점으로 조망하는 성향의 안녕감을 함의한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에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연속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녕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SAS 통계패키지 8.1이 이용되었다. 우선 농촌노인의 고독감과 관련변인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평균 등의 기초통계량을 구하고 카이제곱검정(χ^2),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관련변인들이 고독감에 어떻게 관련되고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은 관심있는 연구변인이 다른 독립변인들에 의해 종속변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점차적으로 이의 변수 외에 다른 변수를 단계적으로 첨가시키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 첫 번째 모델은 농촌노인의 독거·동거가구형태가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모델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이 첨가되면서 첫 번째 모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모델은 사회활동 변인들이, 네 번째 모델은 사회심리 변인들이 각각 이전의 모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1) 재혼필요성 인지도는 현재의 결혼의 지위(배우자 유무)와 관련시키기 보다는 노 부부관계의 질 여부에 따라 새로운 배우자와의 재혼필요성을 묻는 것이다. 재혼필요성과 거주가구유형을 카이제곱검정한 결과에 의하면 부부동거유형의 19%가 필요하다, 21%가 보통이다, 60%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현황

조사대상자는 60~80세의 남녀노인으로서는 평균 68세이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이 43.6%로 가장 많았고 무학이 43.2%이었으며, 평균 초등학교 졸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다. 경제적으로 그저 그렇다가 55.6%로 가장 많았다. 조사유형에 따르면 독거노인가구는 전체의 33.2%, 부부동거노인가구는 33.1%, 자녀동거노인은 33.7%이었다<표 1>.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현황(n=205)

변 인	빈 도		변 인	빈 도		
	n	%		n	%	
성별	남	103	50.2	60~65세	68	33.5
	여	102	49.8	66~70세	78	38.4
	계	205	100	71~75세	38	18.7
학력	무 학	88	43.2	76~80세	19	9.4
	초등학교 졸	89	43.6	계	203	100
	중학교 졸	18	8.8	혼여노	35	17.1
	고등학교 졸	9	4.4	혼남노	33	16.1
경제적인 수준	아주 곤란하다	15	7.3	부여노	32	15.6
	곤란하다	43	21.0	부남노	36	17.5
	그저 그렇다	114	55.6	자여노	35	17.1
	넉넉하다	31	15.1	자남노	34	16.6
	아주 넉넉하다	2	1.0	계	205	100
	계	205	100			

: 혼여노 - 혼자사는 여자노인, 혼남노 - 혼자사는 남자노인,
부여노 - 부부가 함께사는 여자노인, 부남노 - 부부가 함께사는 남자노인,
자여노 - 자녀와 함께사는 여자노인, 자남노 - 자녀와 함께사는 남자노인

2. 고독감 및 관련 변인의 일반적인 현황

농촌 독거노인의 고독감은 백분위로 79점, 동거노인은 48점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이는 유사한 척도로 농촌노인의 고독감을 조사한 연구(한경혜·윤순덕, 2001)와는 다른 결과(별거: 65.8점, 동거: 63.8점)로서, 자녀별거·동거보다는 배우자유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별거·동거여부에 따라 그들이 인지하는 고독감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독거노인은 가족원과의 일상의 관계작용

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이에 비추어볼 때 농촌노인의 고독감은 개인이 가족 및 사회관계의 결핍을 느끼는 데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농촌노인의 재혼 필요성인지 정도, 노인복지정책 만족도, 농번기 농작업시간, 농한기 농작업시간, 안녕감 2는 독거와 동거 노인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인 건강은 동거노인의 경우에 p=.05수준에서 더 높았으며, 친구의 수도 동거노인이 p=.001수준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

관점 지향적인 안녕감 1과 자아관점 지향적인 안녕감 2는 모두 동거 노인이 독거노인보다 p=.001수준에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의 동거가구노인은 독거가구의 노인들보다 삶을 활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원봉사경험여부나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 여부는 독거노인집단과 동거노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고독감 및 관련 변인에 대한 t-test 또는 카이자승 검증 결과 (n=205)

변인 / 집단	Mean(S.D.) 또는 n(%), 백분위		t값
	독 거	동 거	
고독감 정도	3.97(0.86), 79	2.40(0.91), 48	12.2***
재혼필요성 인지도	2.74(1.29), 54.8	2.45(1.11), 49	1.65
노인복지 정책 만족도	2.63(0.74), 52.6	2.73(0.75), 54.6	-0.93
신체적인 건강	2.44(0.87), 48.8	2.69(0.87), 53.8	-1.95*
친구 수 (명)	1.97(1.06), -	2.58(1.17), -	-3.58***
농번기 농작업시간	7.61(3.13), -	8.06(3.46), -	-0.81
농한기 농작업시간	2.67(1.62), -	3.20(1.95), -	-1.68
안녕감1 (타인관점 지향적)	8.24(2.04), 54.9	9.67(1.67), 64.4	-5.34***
안녕감2 (자아관점 지향적)	7.55(2.30), 50.3	9.17(1.75), 61.1	-5.04***
변인 / 집단	독 거	동 거	계
자원봉사경험여부 / 있다 없다	21(10.3)	52(25.5)	73(35.8)
	47(23.0)	84(41.2)	131(64.2)
계	68(33.3)	136(66.7)	204(100)
χ^2	1.07		
자원봉사의향여부 / 있다 없다	54(26.4)	100(49.0)	154(75.4)
	14(6.9)	36(17.7)	50(24.6)
계	68(33.3)	136(66.7)	204(100)
χ^2	0.85		

* p < .05 ** p < .01 *** p < .001

3.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위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농촌노인의 고독감을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2개의 변인을 투입해 적률상관계수인 Pearson's r을 구하여 제시하였다<표 3>. 농촌노인의 고독감과 관련변인들은 r=.05~.40의 상관을 이루고 있었고 각 변인들간의 상관은 r=0.0~.65²⁾의 수준이었다.

이어서 농촌노인의 고독감에는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

며, 독거/동거 가구유형 변인·사회인구학적인 변인·사회활동 변인·사회심리 변인들의 상대적인 설명력이 어떠한지를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인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분석 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2.11~2.26의 수준이었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분산확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을 확인한 결과 모두 2.1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표 3> 고독감과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고독감의 정도	1.00											
2. 교육	-.23***	1.00										
3. 연령	.14	-.23***	1.00									
4. 경제적 수준	-.33**	.15*	-.02	1.00								
5. 신체적 건강	-.21**	.19**	-.14*	.34***	1.00							
6. 친구 수	-.19**	.15*	-.18*	.21**	.19**	1.00						
7. 농번기 작업시간	-.14	.13	-.37***	.08	.17*	.11	1.00					
8. 농한기 작업시간	-.26***	-.05	-.13	-.09	.10	-.02	.51***	1.00				
9. 재혼필요성 인지도	.17*	.13	-.03	.01	.28***	.01	-.00	.04	1.00			
10. 노인정책 만족감	-.05	.04	-.11	.01	-.02	-.06	.04	.12	-.04	1.00		
11. 안녕감1(타인관점지향)	-.40***	.18**	.00	.43***	.28***	.27***	-.03	-.06	.02	.05	1.00	
12. 안녕감2(자아관점지향)	-.35***	.19**	-.05	.44***	.29***	.23***	-.02	-.07	-.06	.15*	.65***	1.00

* p < .05 ** p < .01 *** p < .001

<표 4>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인 회귀분석 (n=144)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B(β)	B(β)	B(β)	B(β)
거주가구유형	1.45(.61)***	1.27(.53)***	1.22(.51)***	1.15(.49)***
성별		-0.27(-.12)	-0.33(-.15)*	-0.02(-.01)
교육정도		-0.22(-.15)*	-0.25(-.18)*	-0.19(-.14)
연령		0.01(.06)	0.01(.02)	0.01(.06)
경제적 수준		0.01(.00)	-0.06(-.04)	-0.05(-.04)
신체적 건강		-0.14(-.10)	-0.09(-.07)	-0.13(-.09)
친구 수		-0.04(-.04)	-0.04(-.04)	-0.05(-.05)
농번기 작업시간			0.02(.05)	0.02(.05)
농한기 작업시간			-0.12(-.19)*	-0.12(-.19)*
자원봉사경험			0.04(.02)	0.07(.03)
자원봉사 참여의향			-0.22(-.09)	-0.23(-.09)
재혼필요성인지 정도				0.22(.22)**
노인정책만족감				-0.01(-.01)
안녕감1(타인관점 지향적)				-0.16(-.22)**
안녕감2(자아관점 지향적)				0.09(.14)
intercept	2.64	2.73	3.84	3.27
F 값	83.63	14.43	10.25	9.15
Adj R ² (R ²)	.37(.37)***	.40(.43)***	.42(.46)***	.46(.52)***
Adj R ² 증가량	-	.03	.02	.04*
D-W계수	2.24	2.26	2.16	2.11

성별 : 여(1), 남(0) 가구유형 : 독거(1), 동거(0) 자원봉사경험 : 있음(1), 없음(0)
 자원봉사참여 의향 : 있음(1), 없음(0) * p < .05 ** p < .01 *** p < .001

2) 일반적으로 투입된 변인들간의 상관계수가 0.7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인호, 1983).

농촌노인의 고독감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델 1에서는 거주가구유형변인만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설명력의 37%를 설명하고 있었다. 모델 2, 모델 3, 그리고 모델 4에서도 거주가구유형변인의 영향력은 소멸하지 않고 농촌노인의 고독감에 가장 영향력 있게 작용하였다. 모델 1에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을 새롭게 투입한 모델 2에서는 교육정도 변인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 사회활동 변인을 투입한 모델 3에서는 성별변인의 유의성이 새롭게 출현했으며 사회활동변인중에는 농한기 작업시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변인을 투입한 모델 4에서는 성별과 교육정도 변인의 유의성이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거주가구유형, 농한기 작업시간, 재혼필요성 인지정도, 타인관점 지향적인 안녕감만이 고독감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변인은 농촌노인의 사회활동변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모델에서의 R² 변화량은 모델4에서만 p=.05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농촌노인의 고독감에는 거주가구유형변인($\beta=.49$)이 가장 영향력 있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재혼필요성 인지정도($\beta=.22$), 타인관점 지향적인 안녕감 1($\beta= -.22$), 농한기 작업시간($\beta= -.19$)의 순서로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교육정도, 경제적 수준, 신체적 건강, 친구수, 농번기 작업시간, 자원봉사 경험이나 참여 의향, 노인복지정책만족감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교육정도, 연령, 신체적 건강, 노인복지정책감 등이 고독감에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여러 선행연구들(박선희, 1997 ; 조황숙·조병은, 2000 ; 한경혜·윤순덕, 2001 ; 허선영, 200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거주가구형태가 농촌노인의 고독감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동·별거 가구형태가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한경혜·윤순덕, 2001)나 도시노인을 대상으로(최성재, 1985 ; 홍숙자, 1992 ; Fenger, Danigelis & Little, 1983 ; Kivertt & Learner, 1982)한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동거 대상이 자녀나 배우자 등 특정인을 지칭하는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거주가구형태는 단순히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외적 구조의 의미를 넘어서 농촌노인이 그들의 배우자이건 자녀이건 가족원의 누군가와 동거하면서 그들의 생활 가운데 가족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내포하고 있음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노인들의 문화규범적인 가구형태가 동거가구인 것을 입증하는 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구조/인성의 시각에 의하면 고독은 개인이 사회관계의 결핍을 느끼는 데서 생기는 현상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독거노인들이 인지하는 고독감이 동거노인에 비해 높고³⁾ 가구형태변인이 고독감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변

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인간간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족관계로 부터 받아야 하는 지지를 그들이 받지 못함에서 오는 소외감, 상실감 등이 크게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임을 함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농촌노인들이 고독감을 느끼는 주된 이유로서 가족이 없거나, 가족의 무관심 또는 아플 때 돌보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84%에 달하는 연구결과(조완규,1994)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상태인 사회적 고립이나 독거가 고독을 낳는다면 그것은 당사자에게 강한 사회적 관계 접촉의 욕구가 존재함을 함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한기 작업시간이 많을수록 농촌노인들의 고독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활동을 하거나 기존의 해오던 일들을 지속함으로써 노인의 생활만족감이 증가한다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이나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농촌노인들이 일을 통해서 경제적 자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는 분주한 농번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한가로운 농한기때에 더욱 절실하게 작용해 농한기 농작업활동시간 변인이 그들의 고독감에 부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노인의 사회활동참여나 정도가 고독감에 부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조황숙·조병은, 2000 ; 허선영, 2000)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 밝혀진 농촌노인의 자원봉사활동경험의 고독감에 대한 무의미한 영향력은 농촌노인들이 생활중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사료되어 진다.

재혼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농촌노인들의 고독감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혼자 사는 60세 이상 노인의 90%가 이성 교제를 원하고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74%가 재혼을 원하는 현실(Yahoo인터넷, 2002)에서 독거노인들의 고독한 현실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재혼에 대한 노인들의 필요성 인지정도는 일반적으로 배우자 유무, 그들의 결혼상태, 성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재혼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노인들의 고독감이 높은 현상은 배우자 유무와 결혼상태가 노인들의 고독감에 유의하게 작용했다는 일부 선행연구들(원영희, 1995 ; 한경혜·윤순덕, 2001)과 일맥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가구유형변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농촌노인의 고독감은 가족관계 상호작용의 상실이나 소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재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은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가족관계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고독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촌노인들이 인지하는 타인관점 지향적인 안녕감1은 자신의 의지나 성취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타인 관점 지향적으로 자신을 조망하는 성향의 안녕감으로서 이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고독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관점지향으로 평가되는

3) 농촌노인들이 인지한 고독감을 3가지 가구유형에 의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한 결과이다 (평균 : 독거노인 - 4.18, 부부동거노인-2.36, 자녀동거노인 - 2.75) (F값 : 79.80***)

행복감이나 삶의 재미, 자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와 같은 현상들은 노인들의 고독감 수준에 부적으로 작용하며 이는 고독감이 단지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얻어지는 자신에 대한 평가나 지지의 결과로부터 생기는 심리적 현상인 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농촌노인의 독거·동거 가구유형,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활동 변인, 사회심리 변인으로 나누고 이에 속하는 개개 변인들이 농촌노인들의 고독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았다. 아울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독거·동거 가구유형,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사회활동변인들, 사회심리변인들이 투입됨에 따라 독거·동거가구유형 변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이 변인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해 보았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의하면 농촌노인의 고독감에 가장 영향력 있게 작용하는 변인은 농촌노인들의 독거·동거 가구유형이었다. 이것은 농촌노인의 고독감에는 가족생활에서 얻어지는 가족원들간의 상호작용,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함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농촌노인의 독거생활은 대부분 자녀들의 도시로의 이동과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서 기인되는 비자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 독거노인들의 가족상호작용, 지지 및 관계의 상실을 회복시켜줄 공동가구나 공동체시설 확충이 그들의 고독감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농한기 농작업시간이 고독감에 유의하게 작용한 사실은, 노년기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빈번하게 참여하거나 해오던 일을 지속함으로써 생활만족이 증가한다는 노년기 역할이론들과 상통하는 의미로서, 보다 활발하고 다양한 관계현상들이 엮어지는 농번기의 지역사회 정서나 노인자신의 삶 보다는 상대적으로 한가하고 무료하게 엮어지는 농한기의 생활이 그들의 고독감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농촌노인들의 노년기 사회활동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결과로서, 농사일을 하지 않거나 유희시간이 많아 노년기에 사회적 접촉이나 관계형성이 제한되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역할활동모델이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함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한기에 농촌노인들의 유희인력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노년기 연령층이 두터워져 노인인구가 다양화됨으로써 젊은 노인(the young old)이 늙은노인(the old old)을 위해, 활동이 자유로운 노인이 그렇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자원봉사하거나 재가복지서비스를 한다면 노인의 고독감 및 노인인구부양에 따른 사회문제도 아울러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재혼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농촌노인들의

고독감이 높게 나타난 현상은 재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은 노인들의 가족관계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는데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 황혼기 노인이혼이나 재혼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감안할 때 독거하거나 홀로된 농촌노인들의 관계 향상이나 재혼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종합하자면, 노인에 관한 문제는 결코 적절한 생계지원이나 시설 구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노년기 농촌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년기의 부정적인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는 역할상실, 가족관계의 상실을 회복시켜주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의 고독감이 해소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농촌노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자료가 거의 없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에서 전국의 농촌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독감의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자료는 농촌노인들의 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현상인 고독감을 단일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고독감을 측정하는 UCLA의 척도가 개발·사용되고 있긴 하나 농촌노인을 상대로 하기에는 문항 수가 너무 많고 변별력 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택한 대안이었다. 고독감의 문제가 노인이 직면하는 4고(考)중의 하나이고 앞으로 이에 관한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될 것으로 가능해 볼 때 보다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이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노인고독감 척도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고독감이 사회관계의 해소나 단절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할 때 가족관계나 지원의 양상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인들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들 변인들이 누락되었다. 거주가구유형 변인이 이를 함의·내포하고 있긴 하나 후속연구에서는 가족상호작용의 양이나 질에 따라 농촌노인의 고독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대상을 유형별로 할당 표집함으로써 조사유형의 빈도가 유사하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농촌노인들의 가구형태비율과 차이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접수일 : 2003년 08월 20일

심사일 : 2003년 09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3년 12월 12일

【참 고 문 헌】

- 김인호(1983). *회귀분석론*. 서울:비봉출판사.
- 김진수(1998). 노인의 고독감 해소를 위한 사회적 지원망으로서의 교회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 석사학위논문.
- 김상규(1973). 노인문제와 그 대책. *노인복지연구*, 2, 2-3.
- 농촌생활연구소(2002). *2002농촌생활지표*.
- 서병숙(1989).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2), 133-141.
- 송대현·윤가현(1989). 노년기의 고독감 : I. 한국노인이 느끼는 고독의 특성. *한국노년학*, 9, 64-78.
- 박선희(1997). 노인의 생활 조건에 따른 고독감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박충선(1990).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여성연구*, 8(3), 115-153.
- Yahoo 인터넷(2003). [http://news.empas.com/show.tsp\(02.23\)](http://news.empas.com/show.tsp(02.23)).
- Yahoo 인터넷(2002). [http://kr.news.yahoo.com\(10.16\)](http://kr.news.yahoo.com(10.16)).
- 유영숙(1985). 자녀와의 동·별거에 따른 노인문제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원영희(1995). 동·별거형태가 한국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 이영화(1997).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과 고독감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임종권(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조완규(1994). 농촌노인이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4, 73-96.
- 조황숙·조병은(2000). 홀로된 여성노인의 자매관계 특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0(2), 197-213.
- 하근영·홍달아기(1999). 노인의 교우관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노년학연구*, 9, 75-90.
- 한경혜·윤순덕(2001). 자녀와의 동·별거가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2), 163-178.
- 허선영(2000). 독거 노인의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최성재(1985). 현대화와 한국노인의 가족에로의 사회적 통합. *사회복지학회지*, 6.
- 홍숙자(1992). *한국거주노인과 재미교포 노인의 생활만족도 비교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Aldous, J.(1987). New views on the family life of the elderly and the near elder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27-234.
- Atchley, R. C.(1976). Orientation toward the job and retirement adjustment among women. In J F. Gubrium(Ed.). *Time, self, and aging*. N. Y. : Behavioral publications.
- Clemens, A. W. & Axelson, L. J. (1985). The not-so-empty-nest : the return of the fledgling adult. *FamilyRelations*, 34, 613-621.
- Edwards, J. N. & Klemmack, D. L.(1973).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28, 497-502.
- Fengler, A. P., Danigelis, N. & Little, V. C. (1983). Later life satisfaction and household structure : Living with others and living alone. *Ageing and Society*, 3, 357-377.
- Kessler, R. C. & McLeod, J.D.(1985)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in community samples. In S. Cohen & S. L. Syme(eds.). *Social support and health*(219-240), New York : Academic Press.
- Kivett, V. R. & Learner, R. M. (1982). Situational influences on the morale of older rural adults in child-shared housing : A comparative analysis. *The Gerontologist*, 22, 100-106.
- Larson, R., Mannell, R. & Zuzanek, J. (1986). Daily well-being of older adults with friends and family. *Psychology and Aging*, 1, 117-126.
- Lee, G. R. & Shehan, C. L. (1989). Elderly parents and their children : Normative influences. In J. A. Mancini(Ed.).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117-129). Lexington : Lexington Books.
- Markides, K. S. & Martin, M. (1979). A caus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4, 86-93.
- Quinn, W. H.(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7-73.
- Rosow, I. (1976). Status and role change through the life-span. In R. H. Binstock & Sti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N.Y. Van Nosthard reinhold,
- Thompson, G. B.(1977). Work versus leisure : An investigation of morale among employed and retired men. *Journal of Gerontology*, 25, 339-344.
- Umberson, D.(1992).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both gene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64-674.